

삼표가 GREEN 세상

계간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

2020 Winter
Vol. 65
January • February • March



SAMPYO

(주)삼표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02-460-7111

Theme Prism | 새해 이슈 분석 소셜 빅데이터로 본 2020년 **Hot Issue** | 현장 스케치 창립 53주년 기념 '사랑의 쌀 나눔봉사'

Spotlight | 우리 부서 자랑 (주)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제아무리 굳게 마음 먹은 일이라 해도 여간해서는 결심하고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미처 모르는 게으름이 숨어 있는 탓이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우리 앞에 놓인 저마다의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후회와 포기를 반복한다.
 새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다. 펜을 들어 첫 글자를 쓰거나, 깡이를 들어
 발을 한 번 내리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은 수월하게 풀려나가기 마련. 펜이든 깡이든,
 일단 시작해보시라. 우리의 시간은 훨씬 근사한 모습으로 흘러갈 테니.

©Getty Images

CONTENTS



04 신년사	28 Spotlight (주)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 'We Work, Co-work, Teamwork'
08 Theme Prism ① 소셜 빅데이터로 본 2020년	34 삼표+ 조직 건강 '파란불' 켜는 회의 문화 개선
12 Theme Prism ② 새해 필독 리스트 5	36 Focus 삼표시멘트의 품질 강점
14 Case Study 새 시대,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38 Photo Event 우리들의 특별한 겨울
18 Hot Issue ① '사랑의쌀 나눔봉사' 모두 함께 그린 따뜻한 겨울	40 언론에 비친 삼표 ① 삼표레일웨이 '레일체결장치' 46호 신기술 인증
20 Hot Issue ② 삼표봉사동호회, 마음에 마음을 더하다	42 언론에 비친 삼표 ② 정용 삼표 콘크리트기술연구소장 인터뷰
24 Hot Issue ③ 제2회 사업장 중장비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 포상식	44 SP News
26 Hot Issue ④ 삼표그룹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오픈	50 삼표인소식
	51 Quiz & Notice

삼표가 GREEN 세상

Quarterly Sampyo
Membership Magazine
2020 Winter Vol. 65

계간 삼표그룹 매거진
2020년 신년호, 통권 65호
2020년 1월 22일 발행
www.sampyo.co.kr

발행인
이오규

편집인
송석훈

기획·진행
김미미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4층
02-6270-0768

제작

(주)가이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02-317-4921

NOT FOR SALE

분기별로 발행되는 <삼표가 GREEN 세상>은 삼표그룹의 기업철학과 사주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비매품.

<삼표가 GREEN 세상>에 실린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Copyright©Sampyo All rights reserved.



庚子年 新年辭

친애하는 삼표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이며, 풍요와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인 만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롭고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열정과 집념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함으로써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의 자력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국내외 경제 상황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 건설 산업은 3년째 하향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소재에 대한 급격한 수요 감소는 뚜렷한 건설산업의 회복세가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어떤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외 환경만을 탓하고 실적 부진을 합리화해서는 발전할 수 없으며,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스스로 환경을 개척해야만 생존하고 영속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사업부문이 지금까지 누렸던 국내 우수기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외형이 크거나 잠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결코 일등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최고의 품질로 작업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생존 기업이 될 것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과잉인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건축자재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 사양도 한정되어 있고, 품질 역시 국제 수준에 미달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멘트의 수요 변화는 10년 후면 지금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우리 모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국과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고, 고객과 긴밀히 소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여 물량은 감소해도 손익은 문제없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룹이 보유한 수직 계열화 사업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고객의 여러 요구사항을 일시에 충족할 수 있는 패키지 영업을 제공하는 것도 차별화의 방식입니다.

둘째,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각오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이 위축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품질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고객의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품질 수준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 방식, 관리 방식 등 일련의 사업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생산 분야 혁신은 큰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전통 제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개발을 하루속히 시스템에 접목해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생존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당부드립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우리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에 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를 위해 안전 확보 원칙과 시스템 또한 선진적으로 재정비하고,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모든 사업장이 금년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능히 잘해나갈 것이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모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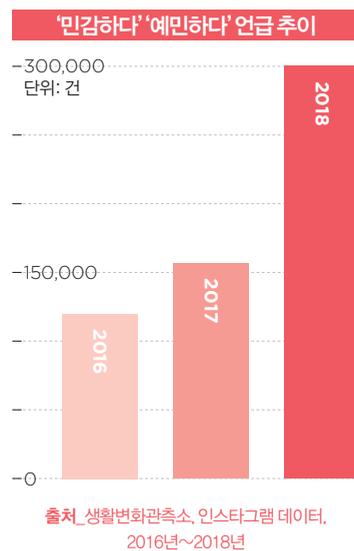


예민하다

반려

민감한 우리, 예민한 나

본인의 직장이나 본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자발적 참가 모임, 설령 그 모임에서 통성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보다 후자가 나와 공통점이 더 많다고 느끼는 시대. 확실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고 다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는 두 가지 양상이 공존한다. 하나는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거부반응,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탐색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에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민감하다' 혹은 '예민하다'의 언급량이 최근 3년간 2.5배 상승했다.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대상도 변화했다. 크게 관계, 환경, 피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변화관측소에 따르면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사전에 부정감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소셜 미디어를 수놓는 수많은 민감의 소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개인이 스스로를 그렇다고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사생활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의 예민한 감수성이다.

'반려'는 이름의 역설

'반려'라는 키워드의 상승 또한 올해 눈여겨볼 만하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증가하고 있다. 반려물고기, 반려도마뱀이 언급되고 반려식물로도 확장되었다. 나아가 반려사물까지 등장할 정도다. '혼'의 가치가 점점 거대해지는 시대에 반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반려'의 대상은 말을 하지 않는, 대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려'는 저 반대편에 서 있는 '혼'의 또 다른 실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날 인간은 '반

〈크라우드크 002〉 '주목' 키워드를 분석하고 싶을 때, 키워드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올해도 자유롭게 즐거운 '혼'을 꿈꿀 것이다. 이는 관계의 기피가 아닌 관계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오프라인 친구보다 공감대만을 공유하는 온라인 친구를 찾고,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관계 대신 반려〇〇에게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고, 누구(무엇)의 '덕후'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변화된 관계공식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려'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아닌 공동체를 찾아 나서고 있다.

사람들은 올해도 자유롭게 즐거운 '혼'을 꿈꿀 것이다. 이는 관계의 기피가 아닌 관계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오프라인 친구보다 공감대만을 공유하는 온라인 친구를 찾고,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관계 대신 반려〇〇에게 돌봄의 욕구를 충족하고, 누구(무엇)의 '덕후'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변화된 관계공식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 해를 멋지게 여는 지름길 새해 필독 리스트 5!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양서(良書)만큼 좋은 것도 없다. 여기 스테디셀러부터 신작까지, 2020년 새해를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줄 '해피 뉴 이어' 서적들을 소개한다.

1

우리 인생의 절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
(테라오 겐, 아트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거대한 물음표를 달아왔다면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로 정신 무장을 해보자. 일본 가전업계의 애플이라 불리는 발뮤다 창업자 테라오 겐의 인생 역정을 담은 이 책에는 열일곱 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0년간 록 밴드 생활을 한 저자가 혁신 기업을 일군 기업가가 될 때까지 걸어온 마법 같은 여정이 담겨 있다. 테라오 겐은 감각과 느낌 하나하나를 집약시켜, 아름답고 새롭고 가치 있는 경험을 가전에 구현했고, 발뮤다의 핵심에는 예민한 감수성과 주변의 시선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다. 저자는 담담하지만 통렬한 어조로 말한다. 인생은 짧다고. 지금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고. 살면서 꼭 한 번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책을 덮고 나면 새로운 각오가 싹트게 된다.

👁️👁️
지금이 우리 인생의 절정이다. 살면서 꼭 한 번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책을 덮고 나면 새로운 각오가 싹트게 된다.



2

굿 프레임이 굿 라이프를 가져온다!



굿 라이프
(최인철, 21세기북스)

심리학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써 내려간 행복과 인생에 관한 통찰 <굿 라이프>는 교수의 연구팀이 수행해온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과 인생에 관한 통찰을 세 가지 틀로 풀어낸다. 1부 '행복한 삶(The Happy Life)'은 행복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독자들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행복의 기술을 찾아보도록 했다. 2부 '의미 있는 삶(The Meaningful Life)'에서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변화가 삶의 선물임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3부 '품격 있는 삶(The Classy Life)'에서는 타인의 행복도 존중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인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소개한다. 깊이 있는 통찰을 생생한 언어로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이 책은 궁극적으로 나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볼 기회를 전해준다.

3

나를 찾아가는 치열한 성장기록



데미안
(헤르만 헤세, 더스토리)

내면의 탐구자이자 자아 성찰의 대표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휴머니즘을 지향하며, 고뇌하는 청춘과 자연에 대한 동경, 인간의 양면성 등을 작품에 담았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가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판한 소설이다. 청춘의 고뇌와 인간의 양면성을 담고 있으며, 자아 찾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내면의 길을 지향하며 현실과 대결하는 영혼의 모습을 치밀하게 그려냈다. 헤르만 헤세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자 치열한 성장 기록인 <데미안>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에밀 싱클레어'가 삶의 근원적인 힘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20세기 센세이션을 일으킨 성장 소설의 고전 <데미안>. 그로부터 백 년 후에 만나는 <데미안>은 여전히 가슴 뛰는 최고의 성장 소설이다.

클립 이미지면 클립나스트 이미지스트

4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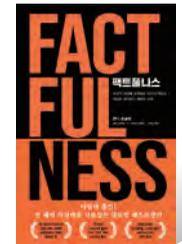


에이트
(이지성, 차이정원)

<리딩으로 리드하라>와 <생각하는 인문학>으로 대한민국에 인문학 돌풍을 일으켰던 작가 이지성이 5년 만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저자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레이 커즈와일,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NASA, 구글 같은 조직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문명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음을 전한다. <에이트>는 사람 개개인에 집중하는 책이다. 그 무엇보다 대체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곧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역설하며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대응법 '에이트'를 제안한다.

5

탈진실의 시대, 더욱 의미 있는 팩트의 중요성



팩트폴니스
(한스 로슬링, 김영사)

2012년 <타임>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한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한스 로슬링의 책.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문제에서 인간의 평균 정답률은 16%, 침팬지는 33%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팬지를 이기지 못할까? 책은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저자는 극빈층의 비율, 여성의 교육 기간, 기대 수명, 자연재해 사망자 수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소개하며, 언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 해결책도 제시한다. 9

AI와 건축 새 시대,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건축과 시공은 온전한 인간의 노력으로 빚어진 산물이나 다름없다. 그 뿌리가 변할 리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 노동집약적인 건축의 패러다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바로 AI(인공지능)라는 시대의 화두 속에서 말이다.

인력의 집합체, 건축과 시공

건축은 다소 과장(?) 업종이다. 일단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니 완전한 자동화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인력이 투입해야만 한다. 일단 고객의 비전문적 일 수밖에 없는 요구를 파악하여 직업인의 성근 체로 거른 다음 법을 비롯해 일조했

별, 교통량, 유동인구 등 온갖 현실적인 조건과 얽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면을 제공한다. 도면 생산의 많은 과정이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물리적인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인간의 머리에 헤드셋을 씌워 읽어낸 사고를 바탕으로 도면을 자동적으로 그릴 수는 없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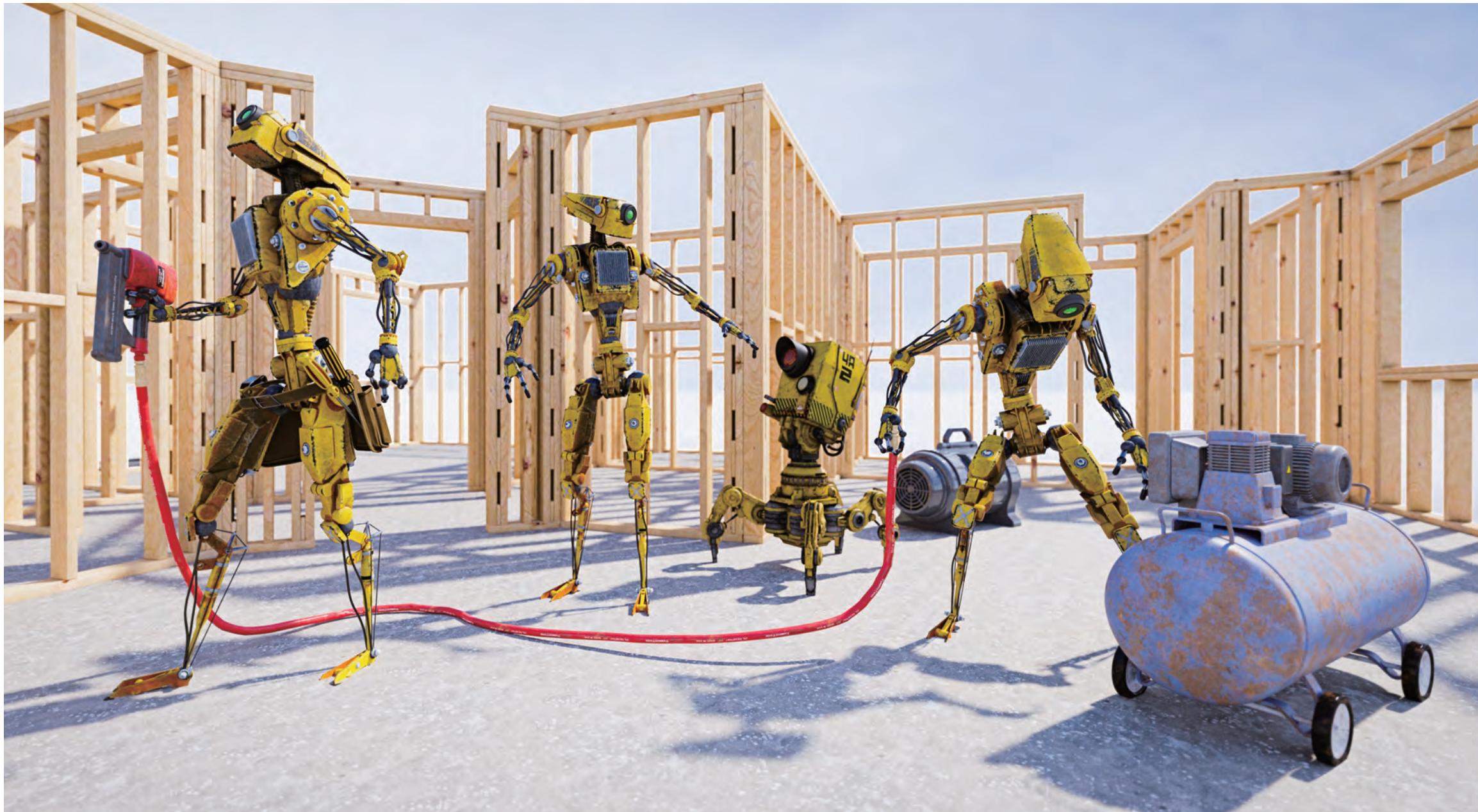
이다. 도면 생산에도 최대한 규격화된 자재 및 부품(심지어 도면을 그리는 캐드 시스템마저도 대체로 미리 만들어진 벽이며 창문, 문 등을 조합해 도면을 그린다)을 쓰지만 이를 조합하는 궁극적 주체는 인간이다.

다음 단계인 건설 혹은 시공은 한층 더 인간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한다. 도면을 바탕으로 짓는 건물은 인간보다 규모가 언제나 클 수밖에 없으므로 중장비를 비롯한 온갖 도구가 동원되지만 또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동화할 수는 없다. 인간이 장비를 다루기도 하지만 벽지나 바닥재 설치 같은 마무리 공사 또한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 도면부터 시공까지, 건축의 생산 과정이 완전히 인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대단히 아파트 같은 몇몇 예외를 빼놓고는 부지의 맥락과 예산 등등에만 맞는 특수해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시공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참 길게도 늘어놓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 세계 노동력의 7%가 시공 산업에 고용되어 있으니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2017년 2월 발간된 매킨지의 보고서(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공의 혁신)에 따르면 매년 10조 달러가 시공 관련 비용으로 쓰인다. 그런 가운데 매년 생산성은 1퍼센트 수준밖에 향상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경제적 규모와 인간의 개입, 그리고 생산성을 감안하면 안전의 확보와 효율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과 시공의 세계에서 시가 넓혀 나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건축과 시공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안전의 확보와 효율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를 통한 생성적 설계

예전에는 3차원의 건물을 위해 2차원의 도면을, 그것도 분야마다 따로 그렸다. 일반 건축에서 전기, 공기조화, 배관 등의 건물이 세워지고 기능하는 데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각각 도면을 그렸다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건물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시스템으로 이 모든 정보를 함께 담는 3차원 도면(혹은 건물의 모형)을 생성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니 각 분야가 서로 다른 2차원의 도면을 놓고 코디네이션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코디네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 전설처럼 들려오는 '건물의 앞뒤 바퀴 짓기' 같은 대참사가 벌어진다. 그렇다고 3차원 모델에서 코디네이션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머신러닝을 동원해 각 분야의 도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보의 불일치며 충돌을 포착하고 수정한다.

더 정확한 공기 예측 및 예산 관리

요즘의 건물은 애물단지다. 특히 유명한 건축가의 그럴싸한 설계를 현실화하려면 정말 필연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산 초과가 벌어진다. 예산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결국 돈이니 전례가 없는 형태, 구조, 재질을 최초로 도입이라도 한다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을 더 잡아먹어 결국 예산 초과로 이어진다. 굳이 유명 건축가의 그럴싸한 설계가 아니더라도 건축에서 공기와 예산의 철저한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럴 때 한 단계 진일보한 인공 신경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기존 건물의 이력(설계 및 시공 기간 등)을 모아 구축한 빅데이터를 참고해 최대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공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시방 및 물류의 오차 절감

설계는 건물에 쓰일 각종 자재의 특징이 끝나야 마무리된다. 쓸 자재의 종류를 목록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수량을 곱하면 자재비가 산출된다. 이를 '시방(Specification)'이라 하는데, 크기는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골부터 작게는 문의 손잡이까지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단가에 맞춰 예산을 미리 산출하므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시방은 이루어졌지만 BIM과 연동해 머신 러닝에 맡기면 설계와 코디네이션에서 시방까지 연속적인 과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뿐더러 오차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방 이후 시공 과정에는 자재의 물류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공에 시와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시공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산품을 활용하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쓰이는 자재의 종류와 양도 늘어난다. 여기에 시공 단계까지 감안하면 자재의 현장 반입 및 시공 시기를 잘 맞추는 한편 제자리를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에도 공간적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니 자칫 잘못하면 당장 쓰지 않을 자재가 시공을 방해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교통 정리가 관건'이라는 말이고 시가 원장과 호루라기를 들고 나설 수 있다. 고층 건물에 많이 쓰이는 커튼월 공법을 예로 들어보자. 구조물을 세우고 벽을 붙여 건물이 이루어지니 같은 규격의 외벽 패널 대체로 유라이 굉장히 많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코드를 붙이는 등 자재 전체를 물류화하면 수량 자체는 물론 시공 위치의 관리 또한 한꺼번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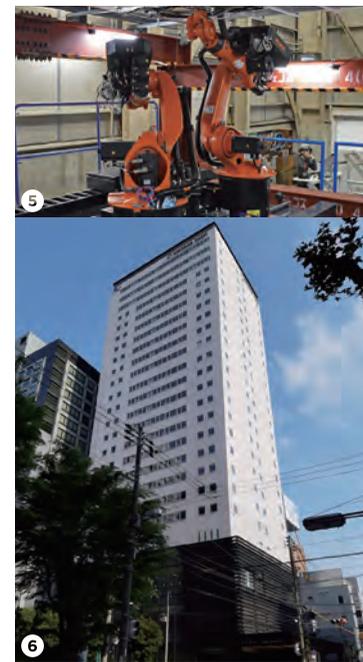
1,2 미국 스타트업 '빌트 로보틱스(Built Robotics)'가 도입한 AI 소형 트랙터. 3,4 중강 GPS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



시와 시공

시공에서 시가 개입할 여지는 아주 많다. 일단 현장 관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보다 큰 규모의 자재를 다루므로 시공 현장은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등의 기본 조치를 엄수하는 가운데 더 큰 그림의 안전 관리를 드론이나 센서 등에 맡길 수 있다. 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작아 좁은 틈새 공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해 시공 현장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움직임 감지나 온도 센서를 통해 자재의 추락으로 인한 대형 사고 등을 방지할 수도 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시야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시를 탑재한 무인 차량이나 기기를 통한 시공 및 관리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타트업 빌트 로보틱스(Built Robotics)는 자율주행 기술을 건설 장비에 도입했다.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5 자율주행 건설 장비(스마트 시공) 빌트 로보틱스, Shimizu corporation



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인데, 트랙터의 지붕에 컴퓨터와 센치미터 단위까지 위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중강 GPS를 탑재해 정해진 위치에서 흙을 퍼 담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센서를 통해 인간의 위치를 파악해 위험 범위 내로 들어오면 동작을 멈출 수도 있다. 2017년에 처음 시도해 이제는 대형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범위를 확장시켜 장비의 연동을 통한 작업도 가능해졌다.

한편 일본의 시미즈 건설이 도입한 '시미즈 스마트 사이트'는 건축 현장을 공장처럼 조성하고 로봇으로 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초 공사를 마친 건물에 비바람, 직사광선 등 기후요소를 차단해주는 커버를 씌운 뒤 그 안에서 과업에 특화된 로봇이 시공을 수행한다. 그런 가운데 건물 중앙에는 타워크레인 에쿠스타(엑스타, Exter)가 자리를 잡고 공정에 맞는 자재를 들어와 커버 안에서 수평 컨베이어 로봇인 로보 캐리어로 분배한다. 한편 두 팔을 여섯 개의 축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보 버디는 화

5 일본 시미즈 건설은 건축 현장에 로봇으로 시공하는 '시미즈 스마트 사이트' 공법을 도입했다. 6 시미즈 스마트 사이트 시스템을 적용해 완공한 오사카의 카리쿠사 호텔. 7 이 건축 시스템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축적 연결과 융합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상 및 레이저 센서, 그리고 BIM을 통해 위치를 인식하고 작업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 2026년까지 건설 현장 작업의 약 20퍼센트를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고 2020년부터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국내 건설 현장에 시범 투입한다. 드릴링이나 페인트칠 등 단일 작업을 맡기고, 2022년부터 용접, 자재 정리 등 더 정밀한 공정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고정된 환경에서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벽을 넘기 위해 건설 숙련공의 업무 패턴을 프로그래밍해 다관절 로봇에 입력시켜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9



1

창립 53주년 맞이해 사랑의 쌀 나눔봉사 실천 모두 함께 그린 따뜻한 겨울

연말이 되면 삼표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기분 좋은 나눔을 더하고 보람까지 얻으니,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소득층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눔봉사' 역시 삼표그룹이 많은 이에게 보내는 응원의 선물이자, 따뜻한 마음이다.

나눔의 온기를 더하다

지난 11월 28일 성북구에는 삼표그룹 자원 봉사 조직 '삼표봉사동호회' 회원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돈암1동 일대 저소득 노인 가정 123가구에 쌀 616포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창립기념일인 12월 1일을 기념해 마련된 '사랑의 쌀 나눔봉사'는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모토 아래 삼표그룹이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본 행사에 앞서 11월 18일에는 성동구청에 5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도 했다.

쌀 나눔봉사 현장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소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성북구 일대에서 삼표봉사동호회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연탄 쌀 나눔 등 봉사활동을



2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표그룹의 대표적인 봉사 조직인 삼표봉사동호회는 매달 배식 봉사, 헌혈, 보육원생과 체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사회공헌에 대한 꾸준한 실천과 노력 덕분에 이날 성북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주)삼표 감사팀 남윤식 차장(삼표봉사동호회 회장)은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삼표봉사동호회를 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삼표그룹의 기업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나눔

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나눔봉사 현장을 찾은 성북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삼표그룹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사랑의 쌀 나눔봉사'라는 프로그램 덕분에 추운 겨울을 더욱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삼표그룹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응원과 격려가 된다"고 전한 그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과 관심을 계속 이어가달라"는 진심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3

1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사랑의 쌀 나눔봉사'에 참여했다.

2 각 집으로 쌀을 전달하기 전 트럭에서 모든 쌀을 내리고 있다. 3 성북구 저소득 노인 가정 123가구에 총 8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4, 5 이날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쌀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3



4



5

삼표봉사동호회 마음에 마음을 더하다

희미해진 구세군의
종소리만큼이나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 필요한
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손길이다.
곳은 날씨, 추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을
만났다.

2019년의 끝자락,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누
구보다 따뜻한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을 인
터뷰하기 위해 종로로 향했다. 그들을 향하
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던 것은 아마도
모임 특유의 선한 에너지가 주는 편안함 때
문이었을 것이다. 삼표봉사동호회 회원인 삼
표 감사팀 남윤식 차장(봉사회 회장), 삼표산
업 물탈간설영업팀 김진형 대리(봉사회 총무),
삼표 사회공헌팀 박소윤 대리와 만난 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유쾌했다. 꾸준히 봉
사 활동을 해와서인지 유난히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던 세 사람. 인터뷰
내내 그들을 보며 마음껏 흐뭇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껏 몰입할 수 있었다.



1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표정이
모두 밝아 보이네요. 우선 봉사동호회에 대
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윤식 차장 삼표봉사동호회는 201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최장현 상무님과 정광
호 부장님께서 설립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 약
5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후생원
방문, 노인복지센터 방문 등 매달 1회 정도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동호회 회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남윤식 매년 연말 총회를 진행하는데요. 정
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매달 봉사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아는
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윤식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활동 범
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후원하
는 후생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노인복
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추억을 나누는 삼표봉사
동호회입니다.”



2

1 남윤식 차장과 김진형 대리가 인터뷰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크리스마스를 맞아
방문한 후생원에서 일일 산타로 변신한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



봉사 활동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것이 많은 활동이죠.”

봉사라는 게 마음은 있어도 막상 직접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봉사를 꾸준히 할 생각을 하리게 됐는지요?

남윤식 물론 봉사 활동도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니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지난 여름에 봉사 활동 차원으로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휴지만 끝나고 나서의 그 뿌듯함 처음의 서막함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어느새 내 손을 잡고 더 놀자고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아, 이 맛에 봉사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봉사 활동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것이 굉장히 많은 활동이죠.

삼표봉사동호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회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남윤식 회원은 상시 모집하고 있어요. 언제라도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사보에 '열혈 회원 모집'이라고 크게 홍보하고 싶네요.(웃음)

가입 조건은 따로 없나요?

김진형 대리 아무래도 봉사동호회다 보니 동호회 성격상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적극적인 참여 의사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매년 연말 총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봉사 활동 진행 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진행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제약이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김진형 회사 근처에서 봉사를 진행하기에 저희 활동 반경이 좁고 예산 문제도 있다 보니, 아직은 봉사 활동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올해에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훨씬 다양한 봉사 활동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회사 차원의 지원이 있나요?

남윤식 전체적으로 회사 내 동호회에 대한 지원 가이드가 있어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회사에서 건조기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주었죠. 사회공헌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박소윤 대리가 개인적으로도 봉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소윤 대리 이번 창립기념기념 쌀 나눔 봉사에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격려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임원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주시면 봉사 활동을 하는 저희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활동에 자주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김진형 맞아요. 자연스럽게 회원 모집에 홍보도 되고, 그룹의 대외적인 평판도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2019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김진형 예전에 경북궁 잔디를 뽑는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저 혼자만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은 저만 개인 소장하고 있습니다.(웃음)

남윤식 후생원 아이들과 갔던 워터파크 체험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어른들과 대면할 때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 시작 전, 참여 봉사 회원들과 파이팅 사진!
2 삼표봉사동호회는 임직원 가족 중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헌혈증 기증하기도 했다. 3 이젠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질만큼 오랜 기간 교류하고 있는 후생원의 어린이들. 4 삼표봉사동호회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매년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5 후생원 어린이들과 함께한 기념 촬영. 6 후생원 어린이들과 워터파크 체험은 모두에게 보람있고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았다.

혹시 앞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바람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남윤식 항상 고민합니다. 어떤 방향이 좀 더 나은 활동일지,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일지 말이죠. 올해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우선 후생원 봉사는 계속 하고 싶어요. 또 다른 회원들과의 유대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박소윤 외부 활동 외에도 저희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헌혈증 전달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임직원들에게 작게나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보

려고 합니다.

김진형 쌀 나눔 행사에 임원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삼표봉사동호회에 참여하는 회원도 늘고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남윤식 앞에서 얘기 했듯이 저희 모임 설립에 큰 도움을 주신 최장현 상무님, 정광호 부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봉사 활동에 변화를 주도하시는 전종현 상무님께 특별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이어진 사진 촬영에서도 그들의 친밀함은 돋보였다. 허물없이 대하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서 '따뜻함이란 이런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누구나 봉사를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하며 살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삼표봉사동호회 회원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삶의 일부를 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세상의 '위너'가 아닐까. 2020년도에 그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더 뜻깊은 봉사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길 바란다. 5



우수 장비 관리자 다 모였다

전국의 사업장 중장비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해 동안 중장비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관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풍납공장 내 교육장에서 '제2회 사업장 중장비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 포상식'이 열렸다. 전국에 있는 6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 및 원가 절감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관리자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중장비 관리 교육을 진행하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깝게는 경기도, 멀게는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포항 등 전국 사업장에서 약 50여 명의 관리자가 참석해 전년 대비 더욱 높아진 관심을 증명했다.

- ↑ 이날 교육장을 방문한 중기기술 담당 양승우 상무는 '건설 기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 ㄱ 포항슬래그사업장 원종서 사장이 우수 사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 앞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과 장비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꾸러졌다. 각 장비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는 동시에 ERP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 교육인 셈이다.

이후에는 행사 준비와 진행을 담당 한 (주)삼표산업 중기기술팀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 '중장비 원가 절감 사례'

를 소개했다. 각 사업장 관리자들이 여러 사업장의 정보를 얻고 서로 교환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장을 직접 방문한 중기기술팀 양승우 상무는 관리자들이 보다 넓은 시각과 인목을 가지고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건설 기계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양승우 상무의 강연이 끝난 후에는 운영실적 우수 관리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신설된 중장비 우수

관리자 및 운전원 시상식을 비롯해 중장비 관리 상태 평가 최우수상 중장비 원가 절감 실적 평가 최우수상 등 총 15명의 관리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당진 슬래그공장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하고 성실한 운영 관리로 많은 사업장의 귀감이 됐다.

올해 2회째를 맞은 교육 및 포상식은 2018년 첫 걸음을 뗀으며, 해당 시상을 총괄하는 중기기술팀에서 각 사업부의 객관적 지표와 자료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한 후 수상자를 가리고 있다.

중장비 관리 상태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에스피네이처 대구사업소 김준수 대리는 "부족한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현장과 관리자 분들이 모두 땀 흘려 노력한 덕분에 제가 대신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ㄴ



시상식을 통해서 장비 관리자에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Mini Interview

(주)삼표산업 중기기술팀 설은석 대리

◎ 이번 포상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비와 관련된 교육과 평가가 전무해 집합교육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운영혁신실 최돈창 부사장님께서도 "교육 효과는 숫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해당 교육과 포상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에 적극적이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 각 사업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상까지 받으니 놀랄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분들도 있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등이 아니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평가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쓰는 장비도 다르고 사업장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골재 부문, 레미콘 부문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했고 정확한 데이터 업데이트와 전년 대비 원가 절감 달성율을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화해서 수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처음 시작했는데 현재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일년 만에 체감하는 것은 확실히 많은 분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임차 업체 사장에게 임차료를 주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상하고 교육도 함께 진행하니,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피부로 느껴질까요. 시상식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데이터 입력하는 속도가 더 나아지는 등 사업장 관리자들의 태도나 의지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 해당 교육과 포상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을 받아본 분들은 확실히 보람을 느끼는 게 보입니다. 장비 관리라는 업무가 생산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득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시상식을 통해서 장비 관리자에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나 인정받고 있네'라는 보람을 심어드리는 일. 이것이 이 행사의 가장 큰 취지이기도 해요.

◎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중기기술팀에서 사업장이 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시스템적으로든 출장 업무를 통해서든 사업장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의 교육도 더욱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표그룹 공식 블로그 & 페이스북 오픈 온라인에서 만나는 삼표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삼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한 공식 블로그에는 삼표그룹 내 다양한 뉴스를 비롯해 기획 기사, 생활 정보 기사까지 아우르며 고객들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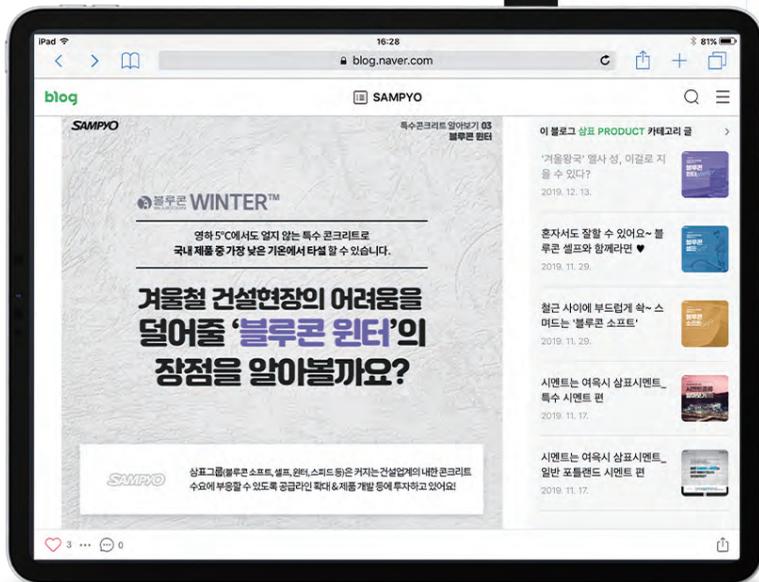
삼표그룹은 고객과의 소통 및 기업 홍보 강화를 위해 기업 공식 블로그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삼표(sampyoopr.blog.me)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ampyogroup)을 정식 오픈했다. 블로그는 사내 커뮤니케이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채널 다각화로 폭넓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작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삼표그룹을 검색할 경우 블로그와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 버튼이 함께 제공돼 고객 접근성 역시 더욱 높아졌다. 삼표그룹은 이번 블로그와 페이스북 오픈을 계기로 그룹 내 이슈 및 뉴스를 적극 소개하고 다양한 그룹 활동을 조명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사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블로그 내에는 '삼표 NEWS', '삼표와 그린 세상', '삼표인 이야기', 'LIFE' 카테고리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삼표그룹의 다양한 소식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련 소식은 물론 일반 고객들이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정보도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아울러 생소할 수 있는 건

설 기초 소재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각적 재미를 더한 구성이 돋보인다.

삼표그룹은 향후 공식 SNS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고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등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5



삼표그룹 공식 블로그 <https://sampyoopr.blog.me>
삼표그룹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ampyogroup>

(주)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
**We Work,
 Co-work, Teamwork**

장비 관리부터 선석 운영, 하역 업무까지 허투루 할 수 없는 고난도의 일을 환상의 호흡으로 척척 해내는 팀이 있다. '5%의 인내와 95%의 자부심'으로 벌크 화물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주)에스피네이처 포항하역팀을 만나러 포항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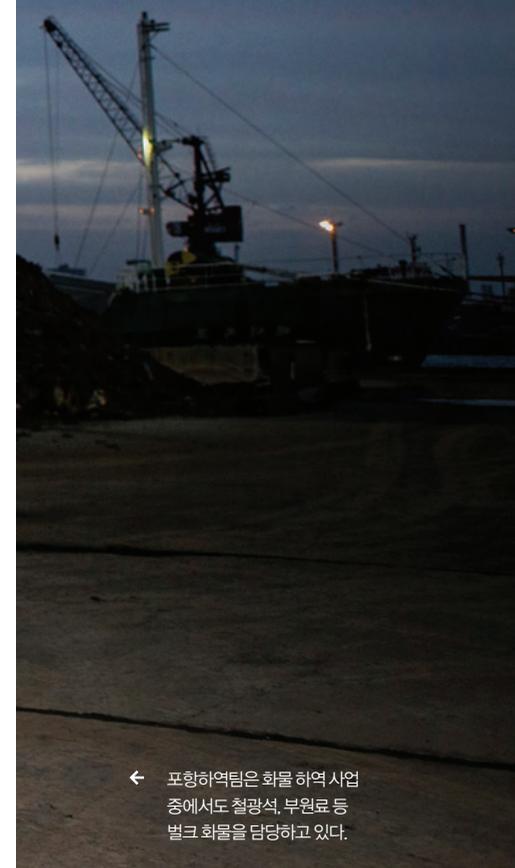
하교 계신 업무를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손상석 부장 쉽게 이삿짐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삿짐을 포장해서 새로 이사간 집에 내려놓잖아요. 하역 업무는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바다 개념으로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항선이 싣고 온 짐을 우리가 내려서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이송시켜주는 업무를 하거나, 반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화주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실어주는 역할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신용환 대표 하역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인 컨테이너 하역과 벌크라고 부르는 비컨테이너 하역이 있고 내항선인 연안 화물 하역이 있죠. 포항 같은 경우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주로 수입과 수출을 하는 외항선들이 많아요.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화물은 부산이나 광양, 울산 쪽에 많고 포항은 철강 공단이다 보니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 화물을 주로 다룹니다. 철광석, 석탄 등의 하역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포항 전체 물량이 5000만 톤에서 60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철광석과 석탄이 약 4000만 톤을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 외에는 에이치빔, 와이로 등 철제품이 1500만 톤, 나머지는 일반 철스크랩, 부원료 인크롬, 망간 등의 물량이 400만 톤 정도 됩니다.

포항하역팀은 어떤 곳인가요?

손상석 사업부가 작기 때문에 총 여섯 명의 사무실 인원이 영업, 기획, 관리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 활동도 하고 향후 사업 기획도 짜죠. 제일 중요한 정산, 매출 등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선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선석의 운영도 함께 하고 있고요.



← 포항하역팀은 화물 하역 사업 중에서도 철광석, 부원료 등 벌크 화물을 담당하고 있다.

선석 운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용환 선석 운영은 쉽게 설명하면 식당 테이블과 같아요. 손님들이 오면 자리 안내를 해야 하는데 5명을 3명 앉는 자리로 안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만 톤짜리 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선석으로 배치하고 하역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장비도 맞추는 거죠. 철스크랩이 들어오면 철스크랩 하역을 할 수 있는 선석에 배를 붙이는 식으로요. 제품 실어야 하는 배를 고철 선석에다 배치하면 당연히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선석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저희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죠. 관련해서는 매일 항만청 주관의 선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석 회의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신용환 포항항에 있는 7개의 하역사, 선사 대리점, 예인선, 배를 붙일 때 서브 인력 등이 항만청에 모두 모여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향후 5일 동안의 선석 운영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배의 상황, 대기하고 있는 배, 들어올 배 등을 체크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정기 회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석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 들어오는 배들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선석 배치를 의논하지 않으면 최적의 운영을 해나갈 수 없어요.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상석 안전 조치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총괄책임자, 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총괄책임자인 대표님과 저, 그리고 현장 팀장이 현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용환 하역 업무는 다루는 장비도 그렇고 내리는 물품도 그렇고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관찰야’ 하면서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이 결국 큰 사고를 불러온다고 생각하기에 준비부터 하역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배가 들어온다고 하면 해당 품목에 맞는 자재, 장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죠. 이러한 치밀한 과정 속에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 ↑ 포항하역팀은 철스크랩을 비롯해 철제품 등의 벌크 화물 하역을 담당하고 있다.
- 낮은 저역에도 철스크랩 하역 작업이 한창이다.

팀 분위기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심상민 대리 서로 함께 일한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제가 12년째 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같이 현장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 선배배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손발이 척척 맞다고 할까요, 파트가 달라도 서로 말하기 전에 알아서 도와줄 만큼 호흡이 잘 맞아요.

그렇다면 막내가 보는 하역팀은 어떤가요?

김민정 사원 입사 4년 차이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사무실 선배님들을 비롯해 현장 감독님들도 조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선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유연한 환경에서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무성 사원 재직년 5월에 입사했는데 경력으로 보면 제가 실질적인 막내조(웃음) 장비 담당이다 보니 장비를 보러 현장에 자주 나와야 하고 또 잘 알아야 해요. 장비 업무를 하려면 현장에서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둘러보기도 하고 선배님들과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회사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권





(왼쪽부터) 이승용 과장, 김민정 사원, 신용환 대표, 원형석 차장, 최무성 사원, 손상석 부장

- ↑ 권위보다는 배려, 강요보다는 격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환상적인 팀워크'의 비결이다.
- ↓ 사업장 규모는 작지만,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역 업무를 위해 '일당백'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

위적인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과 현장 일이 따로 있어 처음엔 양쪽에 모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 저 스스로 놀랄 정도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각각의 장단점을 느껴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입사했을 때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바뀐 생각은 무엇인가요?

최무성 사무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 정말 대충 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입사하기 전에는 저에게도 '대충'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곳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말 여러 번 체크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업무에 임합니다. 이러한 점이 포항하역팀의 자부심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포항하역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신용환 저희들이 포항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1974년부터 40여 년간 하다 보니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또 실제 현장은 직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연하죠. 이곳에서 20여 년간 일하면서 적자를 경험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 역시 저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마치 스테디셀러 책처럼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랄까요. 최근 철강 산업이 정체기를 겪으면서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만 모든 직원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장비로 하루 2000톤 이상 하역을 하고 있기에 높은 생산성도 저희의 강점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신용환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저는 무엇보다 팀원들에게 자기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제가 팀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어찌 보면 이러한 맥락인데요. 사전에 길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정도만 전달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본인이 실수하더라도 직접 해 보고 배우며 보완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괄책임자인 저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일단 그 시간을 넘어서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실력이 금방 늘어납니다. 하역 업무는 꾸준히 공부하고 본인의 능력을 세심하게 다듬어야만 안전하게 또 오래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팀원들에게 특별히 주문하는 자기 계발법이 있을까요?

신용환 팀원들에게 자격증을 따라고 수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기사 1급, 자동차정비기사 1급, 자동차검사기사 1급, 정밀기계가공사, 정밀기계조립기능사, 열관리 등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저로서는 자격증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게을리할수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하역 업무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직원 이든 현장 직원이든 가능한 한 모든 직원이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죠. 각자의 이름으로 2만 원씩 모아서 제 사무실 벽에 돈봉투를 붙여놓았는데, 자격증 시험에 붙으면 제가 선물을 주고 떨어지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하. 제 나름의 방법으로 팀원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팀원들에게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신용환 "자부심을 가져라. 5%만 더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가 한 대에 5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기계인데,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냐. 자부심을 좀 더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해요. 5%만 더하자는 건 좀 더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조금만 더 참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성과가 되고 결실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포항하역팀만의 올해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손상석 신용환 대표님의 말씀처럼 팀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 역량을 더욱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포항하역팀이 더욱 강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형석 차장 재직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팀 워크숍을 올해도 잘 치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가장 중요한 '무사고'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S**



팀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신용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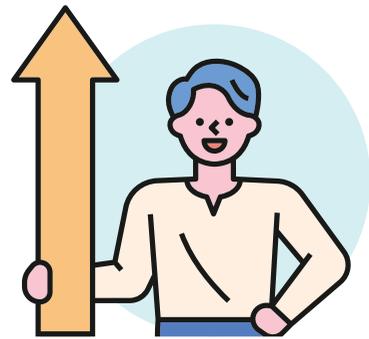
"2019년도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포항하역팀이 무탈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진, 제주 출장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에도 항상 든든하게 포항을 지켜주는 여러분이 있어 정말 안심입니다. 그만큼 우리 팀원들의 업무 역량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자기몫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저에게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며 더 안전하고 질 높은 하역으로 고객에게 보답하는 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클립 편집실 사진 박근우(클립 스튜디오)



회의 효율성 높이는 '1-1-1 원칙' 조직건강 '파란불' 켜는 회의문화개선법

회의는 업무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회의하다 회의주의자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비효율적인 회의문화개선 필요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들은 야근 같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돼 '저녁이 있고 '휴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를 높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하는 환경과 방식 등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그 중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업무는 '회의'다. 회의만 하다 정작 업무 처리할 시간을 빼앗긴 경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회의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기업도 적지 않다. 우리가 흔히 선도적 기업이라 일컫는 대부분의 기업은 그들만의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국내의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의를 잘해서 좋

은 성과를 내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회의를 잘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수히 많다.

비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불만 사항으로도 많이 거론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인력이 불필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자신의 업무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기업으로서도 큰 낭비일 것이고 업무 리스크를 떠안은 직원 입장에서 큰 불만 요소가 될 것이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하라

조직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늘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 이것은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사람의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의사 결정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참여를 통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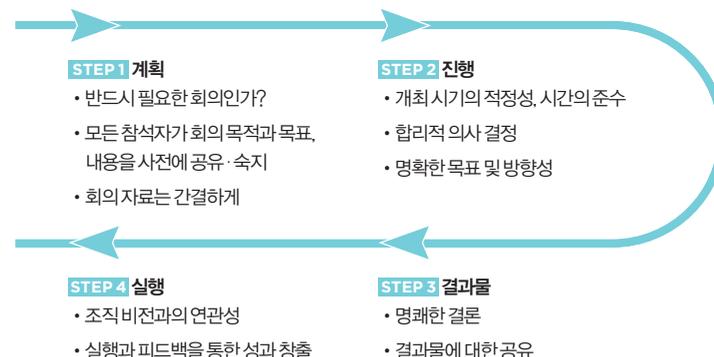
성원의 책임감 향상, 업무 몰입도 향상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팀워크 형성 및 실천, 아이디어 창출, 방향 설정 등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회의에서 실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회의를 하나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가는 기업일수록 회의를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용하고 시간 낭비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회의문화개선을 위한 '1-1-1 원칙'

2016년 대한상의와 맥킨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 기업문화 및 조직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개 기업 중 무려 77%가 조직건강도 부문에서 글로벌 대비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습관화된 야근, 비효율적 회의 등 구시대적 업무 행태가 조직건강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직장인들 역시 '지나치게 자주 열리는 회의', '회의 자료 과다', '경직되고 늘어지는 회의 분위기' 등을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삼표그룹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이슈로 받아들이고, 캠페인을 통한 회의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회의 문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1-1 원칙'. 회의 자료와 의제를 최소 1일 전에 공유하고, 회의 시간은 최대 1시간 이내로 하며, 회의 종료 1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유해야 한다. 또 회의는 1주에 2회 이내로 열고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9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프로세스



일라스트: 셔터스톡, 자료 제공: HR기후팀

삼표시멘트 품질을 말하다 높은 품질이 곧 자부심이 되는 곳

시멘트의 생산 기술은 곧 품질로 직결된다. 그만큼 모든 공정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관리해야 우수한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수준 높은 생산 공정으로 업계 최고의 시멘트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오래전부터 인정받은 기술력과

품질관리시스템

삼표시멘트의 생산 기술은 업계를 선도할 만큼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무엇보다 품질 관리를 위해 첨단 전자동 감시·제어 설비는 물론 통계적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 시료채취기를 이용한 분석과 그 결과에 의한 공정제어로 품질 편차를 적게 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삼표시멘트의 경쟁력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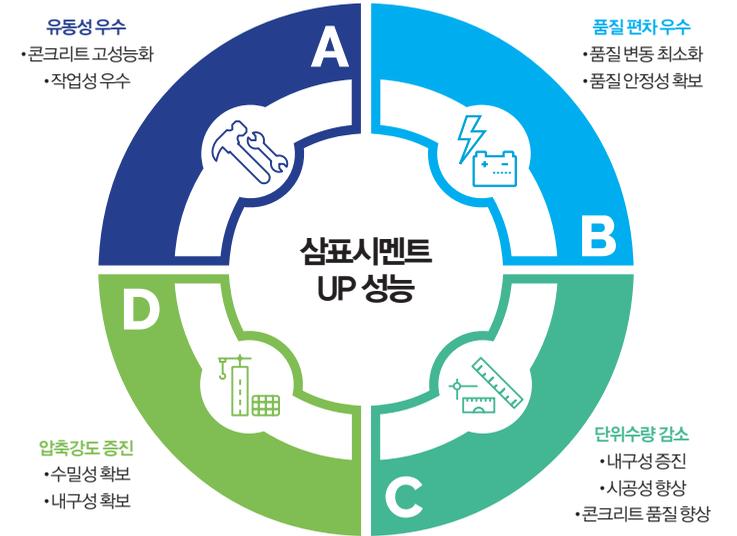
1999년 미국 상무성 산하 NIST 소속 CCRL(Cement & Concrete Reference Laboratory)로부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LIP(Laboratory Inspection Program)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매년 두 차례 CCRL의 PSP(Proficiency Sample Program) 'Physical Test' 부문에 참여하며 꾸준히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월등한 평가를 받고 있다.

품질 편차! 품질 안정성↑

삼표시멘트의 가장 대표적인 강점은 품질 편차가 적고 유동성이 우수한 시멘트를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단위수량이 적게 소요되며, 압축강도 증진 효과가 크다는 강점이 있다. 품질 편차를 최소화해 콘크리트 제조 시 분체량 변화가 적기 때문에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의 강점으로 꼽는 우수한 유동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시멘트 유동성이 우수할수록 콘크리트 제조 시 작업성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고유동,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삼표시멘트의 품질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압축강도 증진이 우수해 탄탄



한 내구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치밀한 콘크리트 구조 확보로 균열, 건조수축, 콜드 조인트 등의 경화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억제하고 콘크리트 중성화, 내화학적 증대 등의 내구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

삼표시멘트의 가장 대표적인 강점은 품질 편차가 적고 유동성이 우수한 시멘트를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이는 단위수량이 적게 소요되며, 압축강도 증진 효과가 크다는 강점이 있다.

'더 우수한 시멘트 개발을 위해!'

삼표시멘트의 높은 기술력과 품질은 끝없는 연구와 개발 노력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9월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세계시멘트협회(WCA)에 가입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세계 시멘트 산업 동향을 파악해 중장기 사업전략을 구상하고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WCA는 28개국 48개 회원을 보유한 세계 시멘트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각 회원사는 수시로 시멘트 산업 관련 기술과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세계 유수의 시멘트 기업과 손을 맞잡은 삼표시멘트. 독보적인 품질과 생산성, 기술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인 셈이다. 5

우리들의 특별한 겨울 Winter Wonder, SAMPYO

추운 겨울일수록 달달한 추억이 필요하다. 얼어붙은 마음에 녹아, 두근두근 따뜻하게 흐르는 특별한 겨울. 그 행복했던 순간 속으로!



황태현 과장
(주)삼표 대권역물류영입팀 포항물류영입소

작년 가족들과 함께한 경주 여행 중 천마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눈이 와서 더욱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제법 근사하죠??



김지수 사원
(주)삼표산업 자원개발2팀

작년 강원도에서 가장 추웠던 날 눈싸움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영화 <히말라야>가 생각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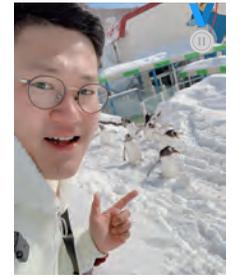
김민선 대리
(주)삼표산업 송도공장 영업과

지난 크리스마스, 산타 분장을 한 아빠를 보고 겁에 질려 울기만 했던 아이 모습이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춘혜 사원
(주)삼표산업 총무팀

나의 사랑스러운 네 살아들 시환입니다. 내복 입고 트리 앞에서 애교 부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김준수 대리
(주)에스피네이처 대구사업소

2019년 2월 삿포로 오타루 수족관에서 귀여운 펭귄들과 함께 한 킷 산책을 위해 아장아장 줄지어 나오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최우섭 대리
(주)삼표 마케팅팀

역대급 한파 속에 태백산 정상을 찍고 온 사진입니다. 속눈썹까지 얼어버릴 정도로 추웠던, 돌이켜보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한정협 대리
(주)에스피네이처 영천사업소영업팀

지난겨울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둘째 덕분에 첫째와 키즈카페, 미술관도 가고 크리스마스 트리 재료도 사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네요.



송건 사원
(주)삼표피앤씨 sm팀

결혼 전 가족 여행. 하얀 눈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버님이 찍어주신 멋진 점프샷!



김민구 과장
(주)에스피네이처 영업팀

두 딸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아빠 산타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현상 사원
(주)삼표산업 골재수주팀

작년 11월 2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스위스의 뮌헨이라는 마을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9



삼표레일웨이 오송 공장

삼표레일웨이 '레일체결장치' 46호 신기술 인증 1년 3개월 만에 '교통 신기술' 나왔다

삼표레일웨이(주)가 최고의 궤도 시공 및 유지보수 능력으로
약 1년 3개월간 명맥이 끊긴 교통 신기술 인증을 받아내며 국내 철도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삼표레일웨이(주)는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궤도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을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 차단 시간 내에 교체가 가능한 기술이다. 목침목은 레일을 고정하고 열차 하중을 견디기 위해 레일 밑에 깔아놓는 직사각형 모양의 재료이고, 분기는 열차의 궤도 변경에 쓰이는 설비다.

목침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 균열 및 손상이 발생해 레일 고정 기능이 떨어지면 빈번한 선형 뒤틀림이 생긴다. 이는 열차의 주행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최악의 경우 탈선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준공 후 20년이 넘는 구간이 많은 국내 도시철도 전반에 걸쳐 목침목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이란 게 업계 지적이다. 새 기술은 분기 목침목 사이에 직결식 체결장치를 설치해 레일에 고정한 후 기존 목침목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로 마무리한다. 현장에 맞는 크기의 에폭시 모르타르 성형틀과 체결장치를 사전에 제작한 후 현장에서 모르타르를 타설해 굳히고 결착해 완성한다.

설치 후 기존 목침목을 제거하므로 시공 중에도 열차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해외에서 많이 쓰는 PC 침목은 시공이 끝날 때까지 열차 운행이 어렵다. 대피 선로 등이 없는 한국 철도 특성상 사용이 어려워 그동안 합성수지 침목이 쓰였다. 하지만 이마저 직선 이 아닌 다양한 곡선 구간의 분기에는 사용하기 힘들었다.

기존 공법과 비교해 재료비를 40%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삼표 측 설명이다. 새 기술은 대구도시철도의 제안 아래 2012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했다.

삼표 관계자는 “국내 도시철도 구간에 설치된 목침목 분기는 총 410틀로서 대부분 노후화한 상황”이라며 “신기술을 통해 효과적인 교체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경제》 2019년 12월 5일자 5

클라우드(건설경제) 기자 사진 총보팀

1년 3개월간 명맥이 끊긴 교통신기술 인증 사례가 나왔다. 작년 8월 고시된 제45호가 마지막이었는데, 최근 삼표레일웨이(주)가 46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것. 건설 신기술과 달리 별다른 혜택이 없는 탓에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주)가 개발한 '부시형 조절톱니와서'가 구비된 분기 레일체결장치 시공기술이 지난 11월 교통 신기술로 지정됐다. 도시철도 지하 구간의 노후화된 목침목 분기기 시스템

정용 삼표 콘크리트기술연구소장 인터뷰 “초고강도·경량 등 특수 제품 개발 주력, ‘연구 개발 메카’로 콘크리트 발전 한몫”

콘크리트 제품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한 삼표 콘크리트기술연구소.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공동연구를 시행하며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가장 보편적인 건설자재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고강도, 내화, 컬러, 문양, 경량, 친환경 등 다양한 콘크리트 제품들이 현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끈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삼표산업이고 그 저변에는 연구개발을 책임진 삼표 콘크리트기술연구소가 자리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선 1993년 7월 설립된 연구소는 삼표가 출시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 개선 연구는 물론 신기술 및 공법 개발 등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 경기도 광주에 별도 연구동을 구축한 후 현재 토목, 건축, 고분자, 화학 등을 아우르는 연구진 28명과 250여 가지 실험 장비를 갖춘 콘크리트 연구 개발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정용 삼표 콘크리트기술연구소장은 “삼표 기술연구소가 출범한 후부터 콘크리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이는 국내 콘크리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안점을 두고 개발 중인 제품은, 우리 연구소는 콘크리트, 분체(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시멘트), 드라이 모르타르, 혼화제 등 총 4개 사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콘크리트와 관련해 초고강도 콘크리트, 컬러·문양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등 일반 콘크리트가 지닌 재료적 한계성을 뛰어넘은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표그룹 내의 신기술 및 공법 개발, 녹색 기술 등 친환경 인증 작업 특허 출원 등 업무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목표는.

매년 10~15개 목표를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뛰어난 제품을 개발해도 고객사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고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따라 2년 전부터 그룹 마케팅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고객사의 니즈 파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셀프, 스피드, 윈터, 소프트 등 ‘블루콘’ 시리즈(특수 콘크리트)다. 시장 호응도 좋았고 특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내한 및 조강 콘크리트에 대한 고객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아심 차게 개발했지만 시장의 환영을 받지 못한 연구 가운데서도 고객 요구에 맞출 만한 제품의 경우 추가 연구 개발을 통해 상용화의 길을 꾸준히 모색할 생각이다.

콘크리트 시장의 친환경 바람이 거세다. 관련 연구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제품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서는 외부 온도가 중요하다. 통상 동절기는 콘크리트 양생이

더더 공기에 영향을 줄뿐더러 크랙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갈탄을 태워 내부 온도를 조절한다. 하지만 갈탄은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을 발생시켜 환경 문제에 더해 근로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조강·내한 콘크리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양생이 빠르면서 조기 강도까지 충족할 맞춤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 <건설경제> 2019년 12월 20일자 9

문제점을 개선할 조강·내한 콘크리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양생이 빠르면서 조기 강도까지 충족할 맞춤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



↑ 특화된 전문 기술력으로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신소재 및 공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삼표 콘크리트 뭐가 다를까?’

삼표그룹은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 특수 콘크리트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조강, 내한, 자기충전, 20mm 골재 배합 등 고품질 특수 콘크리트를 연달아 출시했다. 삼표그룹은 최근 2년간 ▲혼자서도 타설 가능한 자기충전(Self Compacting) 방식의 ‘블루콘 셀프(BLUECON SELF)’ ▲초기 압축 강도를 높여 타설 후 18시간 만에 거푸집 탈형이 가능한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 ▲영하 5°C에서도 사용 가능한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 ▲일반 콘크리트(최대치수 25mm)보다 입자가 작은 골재(최대치수 20mm) 사용으로 작업 성능을 강화한

‘블루콘 소프트(BLUECON SOFT)’ 등을 연달아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들은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발됐다. 건설업체는 공기(工期) 단축, 비용 절감, 정부 정책 부응 등의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삼표는 건설사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로 공사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삼표의 잇따른 신제품 출시의 배경에는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연구 개발(R&D) 지원이 자리한다. 지난 1993년 레미콘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경기 광주시 소재)를 설립해 콘크리트 신기술 개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인재 양성도 적극적이다. 박사급

전문 인력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핵심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해외 사례 견학, 프랑스 등 건설 선진국과의 협업 등 다방면으로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힘을 쏟았다. 업계 최초로 레미콘에 브랜드명(블루콘)을 붙여 기존 회색으로 대표되는 레미콘의 이미지를 밝고 긍정적으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삼표는 1인 타설이 가능한 ‘셀프’, 양생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단축한 ‘스피드’, 겨울철 작업에 유효한 성능을 가진 ‘윈터’, 뛰어난 유동성을 강조한 ‘소프트’ 등 제품의 특성이 한눈에 이해될 수 있도록 네이밍에도 공을 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일조 안정적 자재 공급으로 표창받아



① — 삼표산업 '국립극장 업무유공' 문체부 장관상 수상 쾌거

(주)삼표산업이 문화시설인 국립중앙극장 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선호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2019년 국립극장 업무유공 표창 시상식'에 참석,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립중앙극장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유공 표

창 수상은 서울 도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 레미콘 기사 8·5 근무제 등 제약 속에서 삼표산업 성수공장만이 유일하게 국립중앙극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레미콘 물량을 성실히 납품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극장이 위치한 서울 중구 도심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레미콘 공급 사정이 여의치 않다. 레미콘은 반제품 특성상 90분 내 건설 현장에 공급돼야 공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경기도 권역의 레미콘 공장에서는 이동거리상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타 레미콘업체들이 물량 공급을

기피한 가운데 삼표산업 성수공장이 적기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준공기일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선호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화·행정 목적의 건축물 개·보수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변함없는 후원의 물결 따뜻한 온정의 손길 이어가다

② — 에스피네이처 (재)안성시민장학회에 장학금 3000만 원 전달

(주)에스피네이처는 지난 12월 2일 '소통·공감의 날'을 맞아 (재)안성시민장학회에 장학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기도 안성 지역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안성시민장학회 기부 릴레이 제106호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로써 에스피네이처가 안성 시민장학회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4회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이 됐다.

홍만표 안성사업소장은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안성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장학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후원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투명하고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안성시민장학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 초·중·고·대학생 2450명에게 24억10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안성시민장학회에 기부는 누구나 1인 1구좌 갖기 운동(1구좌 5천 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 현황을 비롯한 장학생 선발 현황 등은 홈페이지(www.ascsf.or.kr)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③ — 삼표산업

2020 레미콘사업부 워크숍 개최

(주)삼표산업이 1월 2일과 3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2020 레미콘사업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0년 사업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총 536명의 레미콘사업부 직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선호 레미콘부문 대표이사는 "산업 성장의 둔화로 많은 직원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간 협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분명 반등의 시기는 올 것으로 믿는다"며 "워크숍을 계기로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⑤ — 에스피네이처

'청각장애인 도자기 제작 교육' 석탄재 지원

지난해 12월 26일 삼표그룹 계열사 (주)에스피네이처 당진 F/A(플라이애시) 공장이 기부한 석탄재를 활용해 제작된 도자기 150여점이 한국동서발전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전시됐다. 이 도자기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석탄재 점토를 빚어 만들었다. 삼표그룹의 석탄재 전달은 한국동서발전의 '석탄재 활용 소지(叢) 개발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뤄졌다. 삼표그룹 사회공헌 관계자는 "그룹의 제품·강점을 활용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④ — 삼표산업

'디자인 씽킹' 주제로 워크숍 개최

(주)삼표산업 사업개발본부가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 행주산성에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 방법론인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주제로 팀원의 창의력과 실행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으로 진행됐다. 삼표그룹 HR본부 겸 사업개발본부의 전병일 전무는 "디자인 씽킹의 핵심은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조직 소통으로 팀원 모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⑥ — 삼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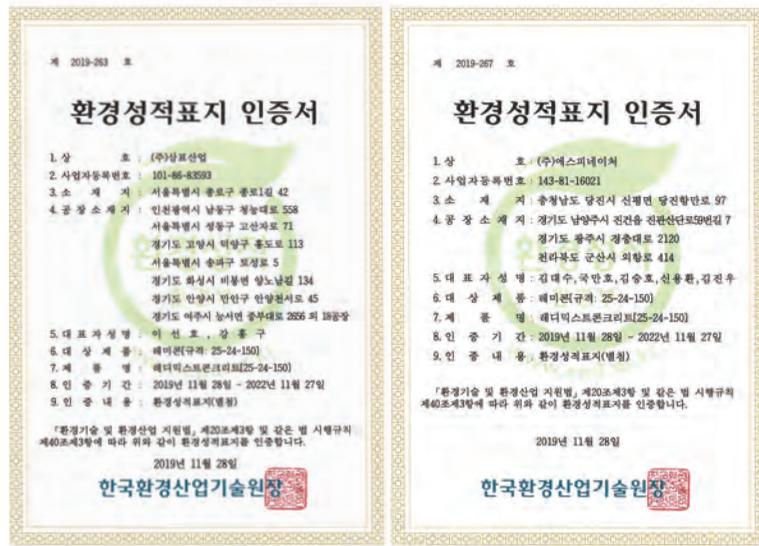
인천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선정

(주)삼표산업 송도공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심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가 2007년부터 시행해 온 환경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인천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기업 중 대기 폐수 등 분야별 환경관리 상태와 앞으로의 환경 분야 투자 계획, 지역사회와의 환경보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송도공장은 환경관리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환경시설 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⑦ — 삼표산업, 에스피네이처
레미콘 부문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주)삼표산업(24개 공장)과 (주)에스피네이처(3개 공장)의 레미콘 부문이 지난해 11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4개 규격에 대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4개 규격은 생산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삼표그룹의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품질담당 박민용 상무는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 반영과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 제품 수를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는 저탄소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⑨ — 에스피네이처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주)에스피네이처 천안슬래그공장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은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천안슬래그공장 거봉포도 분임조는 '6시그마' 부문에 참가해 '차량 대기시간 단축 및 공정산포 개선'으로 고객 만족 실현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거봉포도 분임조 조장을 맡은 한진석 대리는 “앞으로도 사내대회를 더욱 활성화해 품질분임조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⑧ — 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전달

(주)에스피네이처 환경자원부분 국만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북 영천시청에서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환경자원부분 영천사업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장학금 전달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1억6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환경자원부분장 국만호 대표는 “기업의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기업의 큰 역할”이라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⑩ — 삼표산업
안전무사고 기원을 위한
안전지원제 개최

1월 3일 강원도 속초 주봉산에서 환경안전팀과 삼표그룹 전 사업부 안전 담당자들이 모여 2020년 삼표그룹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지원제를 진행했다. 환경안전 담당인 옥창현 상무를 비롯해 환경안전팀, 7개 사업부(레미콘·골재·분체·물탈·콘크리트·철도·환경자원) 안전 담당자들이 모인 이번 지원제는 모든 사업장의 안전무사고와 건강을 염원하기 위해 열렸다. 2019년 하반기부터 안전 조직이 새롭게 개편된 만큼 삼표그룹은 올해 무재해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5

입사를 환영합니다!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	비고
(주)삼표산업	HRD팀	김주형	5급	2019년 10월 01일	
	안양공장 관리과	허영준	기능	2019년 10월 01일	
	양주공장 관리과	서영수	기능	2019년 11월 05일	
	경인사업소	문상수	기능	2019년 11월 11일	
	서부산공장 영업과	이진우	대리	2019년 11월 20일	
	선박운영팀	조진제	기능	2019년 12월 01일	
	선박운영팀	김은희	기능	2019년 12월 05일	
(주)에스피네이처	중기정비팀(49광구사업소)	이원석	기능	2019년 10월 01일	
	광주공장 관리과	정민호	기능	2019년 10월 17일	
	단양공장 생산팀(현장)	박종훈	기능	2019년 10월 23일	
	회계2팀	유상현	과장	2019년 11월 18일	
	당진Slag공장 생산팀	김승규	기능	2019년 11월 18일	
	중기정비팀(양주정비)	송진석	기능	2019년 12월 02일	
삼표레일웨이(주)	철도건설팀	조병문	부장	2019년 11월 01일	
	연마유지보수팀	설봉득	기능	2019년 11월 01일	
	(주)팬트랙	연마유지보수팀	박종국	기능	2019년 11월 01일
연마유지보수팀		최요한	기능	2019년 11월 06일	
포항공장 생산관리팀		이호재	5급	2019년 11월 11일	
삼표피앤씨(주)	제천공장 생산팀	권윤오	기능	2019년 11월 18일	
	공사수행팀	오세현	부장	2019년 12월 01일	
	제천공장 생산팀	김태윤	기능	2019년 12월 02일	
(주)삼표	법무팀	김봉준	과장	2019년 12월 01일	
삼표피씨엔지니어링(주)	BIM팀	김진엽	과장	2019년 12월 01일	
	품질팀	김효섭	사원	2019년 11월 18일	
(주)삼표시멘트	생산팀	주재영	사원	2019년 11월 18일	
	서울영업팀	최아영	사원	2019년 12월 23일	



벌크 하역 사업의 메카
고가의 전문 장비를 갖추고 체계화된 벌크 하역 작업을 펼치는 포항하역장.

삼표 |

네이버 검색창에 '삼표'를 입력하시면
공식 블로그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독자퀴즈

Q1 삼표그룹은 매년 연말이 되면 창립을 기념해 저소득층 가정에 쌀을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눔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의 주축이 되어 봉사 활동을 이끄는 이 단체의 숨은 공로가 큰데요,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성북구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한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p.18 참조)

㉠ ㉡ ㉢ ㉣ ㉤ ㉥



Q2 지난해 11월 삼표레일웨이가 도시철도 지하구간의 노후화된 목침목 분기기 시스템을 아간 차단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부시형 조절톱니와셔가 구비된 분기기 OOOOOO 시공기술로 46호 교통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당 명칭은 무엇일까요? (p.40 참조)

㉠ ㉡ ㉢ ㉣ ㉤ ㉥



두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에 적어 2월 29일까지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만 원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실 때에는 이번 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또는 앞으로 <삼표가 GREEN 세상>에서 다루길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응모 홍보팀 김미미 사원(kmm@sampyo.co.kr)



사업부별 소식을 보내주세요

그룹 내 뉴스를 보다 빠르게 전하기 위해 사보 <삼표가 GREEN 세상>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별 단신 뉴스를 모집합니다. 삼표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생생한 소식을 공유해주세요. 보내주신 뉴스가 사보에 게재되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홍보팀 이선화 대리
(lsh8853@sampyo.co.kr)
홍보팀 김미미 사원
(kmm@sampyo.co.kr)

지난호 퀴즈 정답

- ㉠ 우수축 그라우트
- ㉡ 집중 근무제

당첨을 축하합니다

- (주)삼표 사회공헌팀 박소윤 대리
- (주)삼표 BCT팀 염정훈 사원
- (주)에스피네이처 단양생산팀 김경재 대리
- (주)삼표시멘트 HR팀 진윤선 사원
- (주)삼표산업 파주사업소 생산팀 박인선 대리

오탈자당첨자

- (주)에스피네이처 보령공장 이진성 사원

삼표그룹 SNS
2019년 12월 2일 오픈

-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sampyopr>
-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sampyogrupo>